

일본인 학습자에 의한 한국어 음성의 난이도 조사결과 - 앙케이트 조사 및 청취와 발음 테스트의 결과 -

박 서경, 쓰보타 야스시, 단쓰지 마사타케
교토대학교 인간환경학연구과

The degrees of difficulty of Korean sounds by Japanese L2 learner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listening test and pronunciation test

Seokyung Park, Yasushi Tsubota and Masatake Dantsuji
Graduate School of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Kyoto University
E-mail: skpark@s01.mbox.media.kyoto-u.ac.jp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degrees of difficulty of the Japanese L2 (second language) learners for learning Korean sounds and phonological rules. 31 subjects took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 identification test using words. In addition, each subject's pronunciation was evaluated by 3 Korean native speakers. As for Korean sounds, the results show that Japanese L2 learners have a tendency perceiving that listening is more difficult than pronouncing, although the listening test's scores were greater than the pronunciation test's scores for a majority of the items. As for Korean phonological rules, 1) there were some difficult items for applying the phonological rules, although Japanese L2 learners had knowledge of them, and 2) there were also some items that Korean native speakers evaluated Japanese L2 learners' pronunciations as the phonological rules were applied, even though learners pronounced them without any knowledge.

I. 서론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음성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1, 2, 3외]가 행해져 왔으나,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학습자에 의한 한국어 음성의 운용에 대하여 지각과 산출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 항목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음성에 관련된 항목과 음운 규칙에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음성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앙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가 해당 음성 항목을 어느 정도로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테스트를 통하여 각 음성 항목에 대한 청취능력과 발음능력을 조사하였다. 음운 규칙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앙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통하여 음운 규칙을 어느 정도 발음에 적용시키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II. 조사 방법

2. 1. 피험자

피험자는 일본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일

본인 학습자로, 1년차인 Primary Korean 과정(주 3시간)의 19명(평균 20.7세, 남녀 각 10명과 9명)과 2년차인 Intermediate Korean 과정(주 3시간)의 9명(평균 20.9세, 남녀 각 6명과 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학습자를 각각 초급과 중급으로 정의한다. 한편, 이들 피험자와는 별도로, 9년 이상의 한국어 학습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학을 전공한 3명의 일본인 학습자(평균 31.3세, 남 3명)를 장기 학습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수집하였다.

2. 2.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선행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음성과 음운규칙에 관련된 용어의 표기는 [4]에 의함). 음성에 관련된 항목으로는, (1) 모음의 /어, 오/, /우, 으/, (2) 초성 위치의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ㅈ, ㅉ, ㅊ/, /ㅅ, ㅆ, ㅅ/, (3) 종성 위치의 /ㅁ, ㅂ, ㅅ/, /ㅇ, ㅁ, ㅂ/, /ㅇ, ㅁ, ㅂ/를 조사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 별로 유의미 단어의 minimal pair(종성 유음은 near minimal pair)로 구성된 단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의 유무와 적용에 관련된 항목으로는, (1) 어중 무기연음의 유성음화, (2) 경음화, (3) 격음화, (4) 비음화, (5) 종성 자음의 중화, (6) 유음화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작성된 단어 리스트는 청취 테스트용(음성 관련 항목의 총 144단어)과 발음 테스트용(음성 및 음운 규칙 관련 항목의 총 203단어)으로, 청취 테스트용 단어는 서울방언화자에 의한 녹음 후, 테스트에서 사용하였다.

2. 3. 조사 절차 및 실시 시기

조사는 2006년 12월 중순부터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는 피험자 개인별로, 발음 테스트, 청취 테스트, 앙케이트 조사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앙케이트 조사는, 음성 항목의 경우, 피험자에게 각 항목에 대한 난이도(어렵다(5)g 쉽다(1))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음운 규칙에 대한 항목의 경우, 음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음성 환경의 예를 피험자에게 제시한 후, 해당 음성이 변화하는지, 변화하는 경우 구체적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술하도록 하였다. 청취 테스트에서는, 총 144단어를 무작위로 제시한 후, 최소대립어의 어느 쪽의 발음으로 들리는지 강제 선택하도록 하였다. 발음 테스트에서는, 총 203단어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3회씩 발음하도록 하였다.

2. 4. 분석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는, 음성 항목에 대한 군별 난이도의 평정치와, 음운 규칙의 항목에 대한 군별 정답률을 산출하였다. 청취 테스트의 결과는, 확인

(identification) 테스트의 정답률을 산출하였다. 발음 테스트의 경우, 한국어 모어화자 3명이 평가한 피험자 발음의 명료도(intelligibility)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각 테스트에서 산출된 평균치에 대한 군간 차이의 검증에는, Kruskal-Wallis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3. 1. 음성에 관련된 항목

(1) 모음

각 모음 항목에 대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평정치의 경우, 전체적으로 청취 평정치가 발음 평정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청취 및 발음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취 정답률에 비해 발음의 명료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각 평균치에 대한 3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토한 결과, /우, 으/의 명료도에 있어서 유의차가 확인되었다($p < .05$).

표1. 모음 항목의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초급 [n=19]	중급 [n=9]	장기학습 [n=3]	
/어/ /오/	청취	평정치	3.2 (0.98)	3.4 (1.24)	3.7 (1.53)
		정답률(%)	75.5 (11.41)	67.2 (16.98)	86.7 (7.64)
	발음	평정치	2.8 (1.32)	3.3 (1.41)	3.0 (1.73)
		명료도(%)	70.0 (12.43)	62.2 (12.16)	81.9 (15.30)
/우/ /으/	청취	평정치	3.3 (0.93)	2.9 (1.17)	2.3 (1.53)
		정답률(%)	70.5 (11.65)	69.4 (17.04)	90.0 (5.00)
	발음	평정치	3.0 (1.15)	2.7 (0.87)	2.7 (1.53)
		명료도(%)	64.0 (12.93)	60.9 (12.48)	88.9 (9.69)

모음 항목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우선, 평정치에 있어서, /우, 으/의 항목은 학습 기간이 길수록 청취 및 발음의 평정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어, 오/의 항목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본인 학습자가 학습 초기에 있어서는 /우, 으/와 /어, 오/의 각각의 대립을 같은 외국어의 모음에 대한 대립으로 인식하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어와 비교하여 원순성의 대립(/ㄱ/와 /우, 으/) 뿐만 아니라, 원순성과 혀의 위치(/ㅈ/와 /어, 오/)의 양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음성 항목을 어렵게 인식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발음 테스트의 결과, /어/와 /오/에 대한 각각의 명료도는 초급(74%와 65%)과 중급(65%와 59%)이었으나, /우/

와 /으/에 대한 각각의 명료도는 초급(34%와 94%)과 중급(30%와 92%)으로, /우/에 대한 발음의 명료도가 다른 모음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 초성 자음의 대립

각 초성 자음에 대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초성 자음 항목의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초급 [n=19]	중급 [n=9]	장기학습 [n=3]	
/ㄴ/ /ㄹ/ /ㅇ/	청취	평정치	3.7 (0.93)	3.8 (1.09)	3.0 (1.00)
		정답률(%)	61.0 (15.97)	61.1 (21.25)	80.6 (9.62)
	발음	평정치	3.8 (0.76)	3.6 (1.33)	2.7 (1.15)
		명료도(%)	55.8 (15.09)	56.1 (18.26)	84.0 (11.94)
/ㄷ/ /ㅌ/ /ㅌ/	청취	평정치	4.0 (0.88)	3.9 (0.78)	3.0 (1.00)
		정답률(%)	64.5 (17.09)	64.8 (25.27)	86.1 (12.73)
	발음	평정치	3.9 (0.74)	3.4 (1.33)	2.7 (1.15)
		명료도(%)	49.2 (14.91)	49.8 (18.01)	76.9 (17.86)
/ㄱ/ /ㅋ/ /ㄲ/	청취	평정치	3.9 (0.85)	3.6 (0.53)	3.0 (1.00)
		정답률(%)	59.2 (19.42)	49.1 (19.30)	83.3 (14.43)
	발음	평정치	3.7 (0.87)	3.4 (1.24)	2.7 (1.15)
		명료도(%)	53.1 (12.25)	53.2 (11.12)	81.8 (12.64)
/ㅈ/ /ㅊ/ /ㅉ/	청취	평정치	4.0 (0.75)	3.7 (0.50)	2.7 (0.58)
		정답률(%)	59.6 (21.02)	67.6 (21.43)	75.0 (22.05)
	발음	평정치	3.9 (0.78)	3.6 (1.33)	2.7 (1.15)
		명료도(%)	51.3 (15.50)	49.3 (15.89)	80.2 (14.02)
/ㅅ/ /ㅆ/	청취	평정치	3.4 (0.96)	3.7 (1.00)	5.0 (0.00)
		정답률(%)	57.9 (15.14)	62.5 (10.83)	70.8 (14.43)
	발음	평정치	3.8 (0.69)	3.1 (1.17)	4.0 (1.00)
		명료도(%)	59.2 (12.71)	53.2 (6.25)	72.2 (24.41)

우선, 평정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취 평정치가 발음 평정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청취 및 발음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취 정답률에 비해 발음의 명료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각 평균치에 대한 3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토한 결과, 연구개음의 청취 정답률과 발음의 명료도에서, 파찰음의 청취 평정치와 발음의 명료도에서, 마찰음의 청취 평정치에 있어서 유의차가 확인되었다(p<.05).

초성 자음 항목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관찰되었다. 우선, 청취 평정치에 초점을 맞추면, 3항 대립에 대한 평정치는 학습 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마찰음의 2항대립은 반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습 초기에 2항 대립에 비하여 3항 대립의 구별을 어렵다고 인식하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마찰부에 있어서의 연음과 경음의 구별을 어렵게 인식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3항 대립의 음성 항목에 대하여 무기연음, 무기경음, 유기경음별로 청취 정답률과 발음의 명료도를 산출한 결과, 청취에 있어서는 무기연음의 정답률이 가장 높고, 발음에 있어서는 유기경음의 명료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종성 자음의 대립

각 종성 자음에 대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우선, 종성 위치의 폐쇄음과 비음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취 평정치가 발음 평정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청취 및 발음 테스트의 결과, 폐쇄음의 경우는 청취 정답률에 비해 발음의 명료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비음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발음의 명료도에 있어서는, 초급, 중급 모두 양순음에 대한 안정적인 발음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청취 정답률에 있어서, 폐쇄음의 경우는 72% 이상(초급 76%, 중급 72%)이었으나, 비음은 58% 이상(초급 58%, 중급 65%)으로, 양순위치의 종성 비음을 치경음과 연구개음으로 혼동하여 듣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종성 유음의 경우, 청취 및 발음의 평정치가 전체 음성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청취 정답률과 발음의 명료도는 가장 높았다. 단, 종성 유음의 오류 경향으로 나타나는 모음 삽입의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발음 테스트에서 사용한 모든 단어 중, 종성 유음을 포함한 단어의 발음에 대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모음 삽입 여부(예: 글을 그루 등으로 발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음 삽입에는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ange: 0% - 91%).

마지막으로, 각 평균치에 대한 3군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폐쇄음에 대한 발음의 명료도와, 비음에 대한 청취와 발음의 평정치 및 청취 정답률에 있어서 유의차가 확인되었다(p<.05).

표3. 중성 자음 항목의 결과

구분			평균(표준편차)		
			초급 [n=19]	중급 [n=9]	장기학습 [n=3]
/압/ /안/ /악/	청취	평정치	3.7 (1.06)	3.6 (0.73)	2.7 (0.58)
		정답률(%)	69.9 (8.75)	64.8 (18.00)	79.6 (16.97)
	발음	평정치	3.5 (0.96)	3.4 (1.01)	2.7 (0.58)
		명료도(%)	63.0 (14.75)	55.3 (18.01)	93.6 (4.99)
/암/ /안/ /양/	청취	평정치	4.3 (0.58)	3.2 (1.30)	3.0 (1.00)
		정답률(%)	58.2 (11.62)	64.8 (14.96)	81.5 (12.83)
	발음	평정치	3.5 (1.22)	2.4 (0.88)	2.0 (1.00)
		명료도(%)	68.9 (14.79)	69.0 (16.24)	91.4 (7.01)
/아/ /알/ /아루/	청취	평정치	1.6 (0.77)	1.4 (0.73)	1.3 (0.58)
		정답률(%)	96.1 (9.77)	97.2 (5.89)	100.0 (0.00)
	발음	평정치	1.6 (0.83)	1.6 (0.88)	1.0 (0.00)
		명료도(%)	90.4 (9.81)	90.4 (10.51)	99.4 (1.07)

3. 2. 음운 규칙에 관련된 항목

그림 1의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 유성음화의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학습 기간이 길수록 음운 규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를 그림 2의 발음 테스트의 결과와 관련지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유성음화와 비음화에 대해서는 규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피험자가 많았으나, 한국어 모어화자가 규칙이 적용된 발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음화와 격음화에 대해서는 초급, 중급 모두 규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피험자가 많았다. 하지만, 격음화와는 달리, 경음화에 대한 발음의 경우, 한국어 모어화자가 규칙이 적용된 발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화의 경우, 규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피험자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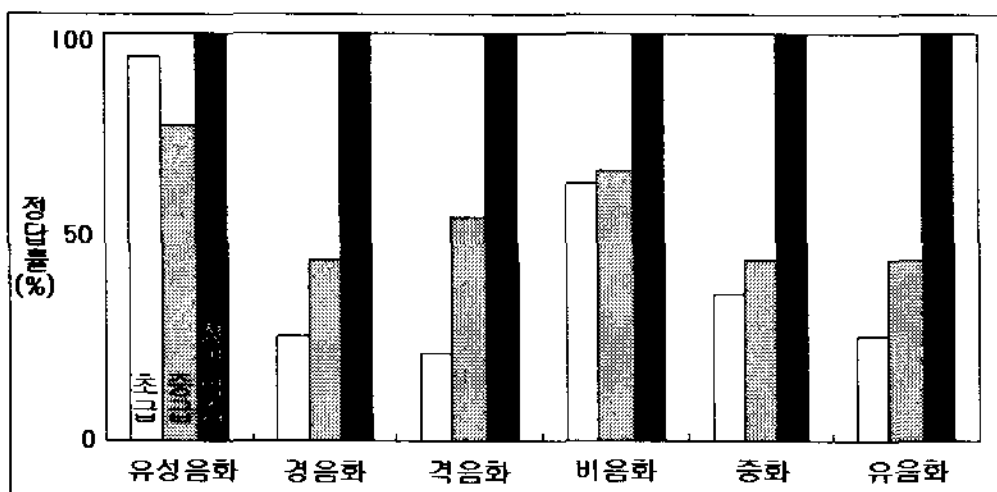


그림 1.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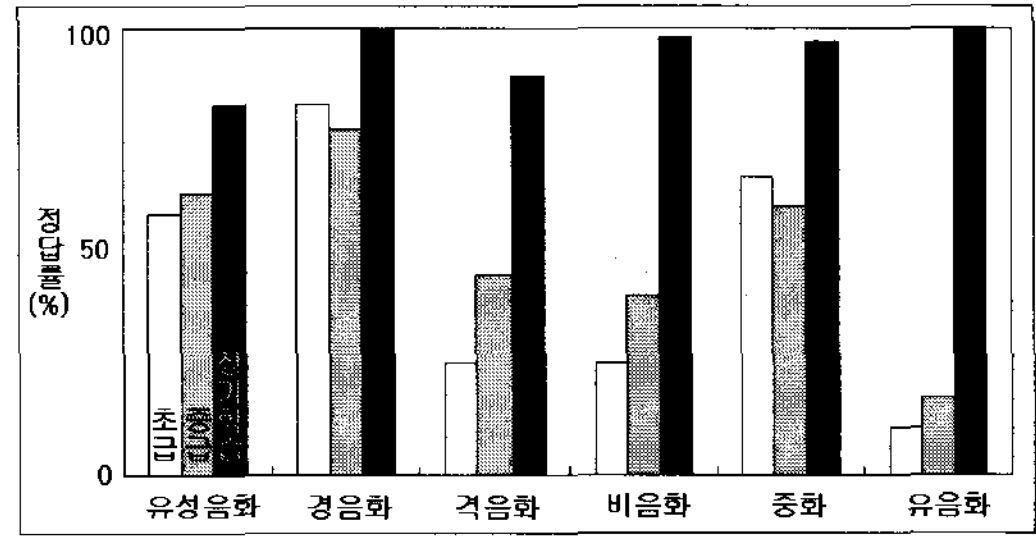


그림 2. 음운 규칙의 적용

IV. 결론

일본인 학습자는 음성의 오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청취가 발음보다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청취 정답률이 발음의 명료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음운 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규칙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규칙 적용이 어려운 항목과, 규칙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모어화자가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는 항목이 있었다. 금후에는, 항목별 오류 경향의 분석과 함께, 음향 분석을 통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梅田博之, “韓國人に對する日本語教育と日本人に對する朝鮮語教育”, 日本語教育, 55号, pp.48-58, 1985
 [2] 하세가와 유키코, “일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지도법 - 입문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8집, pp.161-178, 1997
 [3] 우인혜, “한일 언어 비교를 통한 발음 교수법”, 이 중언어학, 15호, 319-347, 1998
 [4]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